

한양대학교 제21대 총여학생회
밀담 언어성폭력 자료집

우리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94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Twitter : @Mildam_HYU

Facebook : 한양대학교 제 21대 총여학생회 밀담

E mail : mildamHY@gmail.com

305.42
한63우

GL00009412

300

Prologue

강의실 언어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오랜 시간 동안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는 여성에게 가사, 육아노동, 임신, 출산, 성적대상, 혹은 보호해야 할 존재, 미숙하거나 미완성된 존재의 성역할을 씌워왔다. 그리고 그 충실한 성역할을 위해 모성애나 여성에 대한 이미지, 아름다운 몸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성역할이란 마치, 대칭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권력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물론, 이러한 성역할 강요의 피해자는 단순히 여성만은 아니다. 남성다움의 강요, 남성답지 못한 남성에게 대한 비하, 가장의 역할로 여겨지는 부담이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틀이 거북한 이들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폭력들은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 세계에서 누구도 완벽한 수혜자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의 현장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대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공식적인 공간,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실 내 수업에 있어서도 교수님의 발언에 의해, 수업 내용에 의해, 혹은 그러한 발언을 하는 학생들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크고 작은 편견이 끊임 없이 재생산 되고 있다. 심지어 '여성'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교수님들이나 페미니즘, 젠더 관련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성을 사회적 공적 주체로 보지 않고,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거나, 여성이 성적대상이 되거나 무능력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그럴리가 없다고? 여성상위시대 아니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하겠냐고? 글썄.. 사례를 보면 남들이 같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가 비밀비재하게 해 오고 들어왔던 말들임에 놀랄지도 모른다.

Prologue

강의실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존중되고 평가되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에서 수업과 무관한 차별이나 배제, 소외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수업권을 침해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언들에 불편을 느끼는 학생들은 많지만, 그것을 지적했을 때 받을 불이익이나, 예민하게 군다는 비아냥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 불편을 느끼는 내용이 수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개인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된다는 보정도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런 내용을 외우고 시험을 보기까지 한다.

또한 교수는 학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생산하는 학자의 위치에 있다. 그런 분들의 가부장적 사고는 단순히 학문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로써, 지향해야 할 이데올로기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단순히 수업의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 성폭력적 성차별적 사고와 언행은 재생산되고 학문체계이자 정책으로써 편견을 만들어내며, 실질적으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기도 한다.

21대 총여학생회 밑담에서는 교수언어 성폭력 신고창고를 운영해왔다. 다양한 신고들이 접수 되었으며, 신고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행히도 많은 교수님들이 감사하게도, 시정을 해 주셨으나 자신의 학문적 논지나 권위를 주장하시며 시정을 거부하신 교수님들도 계셨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안전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사례를 통해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자

Cover Story

강의 중 성차별/성폭력 발언 사례

총여학생회에서는 <우리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자료집 발간에 앞서 '교수 언어 성폭력 신고 창구' 를 열어 익명으로 강의 중 언어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사례 제보와 비판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본 자료집에서는 실명으로 제보 된 교수 및 강사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Case 1.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강조

01. 강의 중 뜬금없이 여학생들을 쳐다보며, "여자들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02. "00이는 진로가 정해졌어? (안정해졌어도) 괜찮아. 시집 잘 가면 되지."

03. "이건 현실적인 얘기다. 잘 참고 하면 좋겠다. 남자는 직업이 중요하고, 여자는 결혼할 때는 아무래도 친정집 재산이 있는 게 좋다."

●● 잠깐!! 가부장적???

남성 가부장이거나 될 사람인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갖는 문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주체적이라기 보다 부수적이고 보조적이라고 여겨지는
역할을 할당 받는다. 단순히 가족구성원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을 '결혼 상대가 될 남성을 보조해야 하는 여성' 들로 보는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은 아직도 강의실 내에 버젓이 존재한다. 결혼한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을 돌보기 위해 삶의 다른 부분을 포기하게 하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교수들은 여학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성취를 '결혼 전까지의 한시적인 것' 이거나 '여성이 스스로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도 가정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여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한다.

Case 2. 군 경험에 대한 강조 및 미경험자 배제

01. "확실히 군대, 특히 특전사 이런데 갔다 온 애들이 성실하지. 나는 대학원 생 뽐을 때는 그런 거 보고 뽐는다. 군대 안 갔다 오면 대학원생으로 안 뽐는다. 여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뽐아놓으니 결국 시집가더라. 남자애들도 특전사 이런 애들 아니면 끈기가 없다. 전에 내가 실수로 대학원생 후보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깜빡 잊고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생각나서 다시 와보니 특전사 개만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확실히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되는 것 같다."

●● 수업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혹은 군 경험에 따라 학생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학업 성취가 낮을 것이라고 으레 짐작하여 무시하거나, 부차적인 존재로 순위를 매기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업과 관련 없이 군 미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성을 평가 받거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는 등, 학업에 매우 실제적인 악영향을 받게 된다.

Case 3.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01. "(엽기적 강간,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험악하니까, 여자들은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노출이 심한 옷도 피하는 게 좋다."

02. "여학생들은 늦으면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학교가 보호해 줄 수 없다."

03 "밤늦게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자고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여자들은, 위험하다. 000, 너 꾸벅꾸벅 졸고 그러는걸 보니 어제 술 마시고 밖에서 잔 거 아니냐. 남자들이 쉽게 본다."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재생산해낸다. 피해자가 어떡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생각이다. 다른 범죄에는 이러한 통념이 없는 것에 비해, 성폭력적인 행동이 그동안 자연스러운 남성의 성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차단하거나 가해자 옹호론을 펼치는 것도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통념을 강의실에서 유포하고 재생산시킨 것이다.

Case 4. 가부장적 여성성에 대한 강조로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는 발언

01. "여자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담배는 피해야 된다. 아이를 낳을 몸이니까 그런 건 피하는 게 좋다."

02. "여자가 그렇게 다리 벌리고 있으면 쓰겠니?"

03. "중동 이런 델 가면, 여자들이 머리부터 발 끝까지 덮고 다닌다, 요새 여자애들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가부장적인 여성성에 대한 강조는 언어성폭력으로 쉽게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을 가부장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 맞출 것을 권하는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앞에서 개별성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학업 성취와 무관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별개의 평가 기준을 적용 받는 불쾌함을 겪기도 한다.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업이 대학 내에 존재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Case 5. 성적 역할 및 이미지에 맞춘 기준을 강요하거나 이를 이용한 비하

01. "여자는 감성적인 부분이 단연 우수하고, 남자는 논리적인 부분이 우수한 게 당연한데 왜 너는 여자면서 여자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니?"
02. "우리나라 스튜어디스 참 예쁘다. 하지만 10년을 못한다. 일이 힘들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 이따 만한 아줌마들이 빵 툭툭 던져주잖아. 그게 맞는 거 아냐?"
03. "남자들은, 능력만 좋으면 된다. 여자들은 일단 예뻐야 하고, 남자들이 취직 잘 하고 능력만 좋으면 결혼은 잘 한다."

●●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은 여성성을, 남성은 남성성을 획득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교육받게 된다. 자연스럽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남성, 여성성/남성성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일 뿐 아니라, 차별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남자답다', '여성스럽다' 는 내용을 교육받고 강요 받는데, 실제로 개개인의 차이는 다양하고 이분법적 틀로 묶어질 수 없으므로, 특정 성역할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다.

Case 6.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 하는 발언

01. "내가 예전에 어떤 교수를 초빙했는데, 그 이후에 그 교수가 노벨상을 받아서 몸값이 많이 올랐다. 제시했던 금액과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교수를 한국에 초청해서 교수 부인은 학생들 데리고 투어를 시키라고 하고, 교수를 데리고 박정희 갔던 요정에 갔다. 그렇게 (성접대를) 하니깐 교수가 아주 만족해서 코리아 원더풀 코리아 우먼 원더풀 하고 갔다."
02. "(경제적 개념으로 외부효과를 설명하며) 예쁜 여자가 있으면, 모두들 즐거우니까, 이건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성애화되고 성적 대상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성적(性的) 영역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 또 여성이 존재하는 여러 맥락을 삭제한 채, 그저 여성을 성적 존재로만 보는 것은 여학생들의 성취를 방해한다.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재단해서 여성을 구분 짓거나, 사회에서 여성이 성취를 얻으려면 성적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여학생들을 '꽃' 으로 표현하는 등은 여성을 성애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잘 드러나 있다. 접대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사례01)은 사업적으로 여성의 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Case 7. 부적절한 성적 농담

01. "나는 옛날에 만화방에 많이 갔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어딜 자주 가나? 키스방?"
 02. "예전에 내가 유학생할 할 때, 룸메이트가 외국인이었었는데, 문에 넥타이나 양말이 걸려있는 날에는 발이 네개, 그것도 매일마다 여자가 바뀌었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들은 젊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 성적 농담은 단순히 의미 없는 장난이나 악의 없는 오락 행위가 아니다. 사회가 성적으로 개방적인가 아닌가와 별개로, 성적 농담은 누군가에게는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다.

Case 8. 여성 혐오, 비하

01. "여자들 혹시 결혼해서 남편 등골 빼먹지 말아라."
02. "00는 여성학에 의식화가 되어있지? 공부하다 보면 남자들은 망할 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 남녀에 대한 편견에 바탕을 둔 농담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유머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합리화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Case 9.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능력/주체성을 무시하는 발언

01.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활동 같은 것 하는 아줌마들은 집에서 밥도 안하고 다들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면서 휩쓸려가서 하는 거다."
02. "유네스코 일이 참 편하다.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참 편하니까 여자들이 가야 더 좋다."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평가 받지 못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성취를 저해하고 의욕을 떨어뜨린다. 일을 잘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여성은 본래 열등' 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남성 중심적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Case 10. 성소수자를 배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이성애 중심주의

01. "여자 둘이 맨날 그렇게 같이 앉아있으면 레즈비언인 줄 안다. 그러지 마라."
02. "동성애에 대한 집착은 정신질환이다. 미디어 매체를 보고 생겨난 동성애자들이 있다."
03. "게이는,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다. 자꾸 사람이 잘못된 쪽으로 파고들면 안 된다."
04. "하리수는 불쌍하다, 동성애가 허용되었으면, 그렇게 수술까지 안 했을 텐데."

●● 이성애 중심주의란 모든 사람은 응당 이성애자이며 반드시 이성애자여야 한다는 독단 아래 오직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 올바른 것이라 여기는 가부장적 통념이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개인적인 성적 지향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성별 권력관계와 가부장제를 공고히 한다. 비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무시하고 그 존재를 삭제시킬 권리가 없음에도, 많은 비성소수자들이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스스로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사례02).

잠깐,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일" 만 언어 성폭력일까?

우리가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언어 성폭력을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대학 내 어디서든 의도치 않게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난다. 쉽게는 대학 문화와 뗄 수 없는 술자리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한 친구가 있다. 선배들은 술을 못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다른 자리다.

혹은 '여자들은 이기적이어서'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끼고 싶어도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에서 난무하는 성적 농담들을 편히 넘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술자리에서 대학 내 문화와 관련한 많은 것들이 결정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많은 술자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2차 가해도 빼놓을 수 없다.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다며, 여자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왜곡된 통념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들 말이다.

우리는 대학 내 어디서든, 그리고 사회 어디서든 이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대학 내에서도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본 자료집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더불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대학 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들의 외람된 수업만들기

교수님, 왜 그러세요?

어느 날, 앨리스는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들었다.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혹은 양성평등센터나 총학생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수님께 "그런 말 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반응 1

"헉, 내 발언이 그런 것이었구나!"

교수님은 자신의 발언이 그렇게 잘못될 수 있었다는걸 모르셨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울러 그러한 발언이 폭력이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신다. 다음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시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신다. 그 다음부터 수업에서 불쾌한 말을 들을 수 없음을 물론이다. 아, 이런 교수님만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응 2

"아, 미안해요. 그런데 -"

자신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고, 잘못일 인정하시면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시는게 회피하신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 또 얘기하지는 말아달라. 앞으로 그런 발언은 없을 테니 일을 크게 만들지는 말아달라. 사과는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시는건 회피하시는 태도에서 앨리스는 혼란스럽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건지, 아니면 일단 불고려고 사과하신 건지.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앨리스 뿐만이 아닌데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원지??

++반응 3

"자네 지나치게 예민하군!"

뭐 일단은, 교수님 당신의 발언이 차별이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만 "예민한 학생 개인의 문제"로 금방 치환되어 버리신다. 일단 "인정"은 하고 일이 커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문제제기한 학생을 "예민하다" 라시며 "문제없음"으로 일축해 버리신다. 예민한 앨리스가 문제라는 것이다.

++반응 4

"이봐,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나는 이러저러한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굳이 성차별/성폭력적인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결국 '그걸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으로 듣는 것은 자네가 무식한 결세' 라는 결론. 교수님,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배우시는 건 어떨까요?

Don't Worry Be Happy!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즐거워하잖아. 수업이 재미있으면 이해도 잘 되는 거고!"
사실 강의실뿐 아니라 많은 개그프로에서 특정 이미지나 집단을 비하해서 웃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많은 학생들이 또한 이런 논리에 쉽게 수긍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면서 재밌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즐거움' 일인 걸까?

수업이라는 숲에서 그런 발언은 그저 나무 한 그루?

아무리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업의 맥락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부적합하다는 입장. "그, 그래 그 발언은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업의 맥락을 파악해야지!" 물론 어쩌면 그 발언을 빼고는 훌륭한 수업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전혀 수업의 맥락과 관계없는 발언이었다면, 수업과 상관없이 차별, 폭력적인 발언을 하셨던 것 역시 문제가 아닐까? 성차별/성폭력적인 발언이 일어난 수업과 성차별/성폭력적인 맥락을 가진 수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폭력이라고 신고하세요~"

이런 말 듣고 꼭 뭐라고 하는 학생들 있는데, 신고하세요~ ㅋㅋㅋ"
앨리스는 또 한번 혼란스럽다. 이건 교수님이 당신의 발언이 성차별,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닌가? 하지만 앨리스가 혼란스러워 할 때, 정말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할 때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저 발언에도 같이 웃을 것이다. "아, 너 신고해 ㅋㅋ" 라고 옆 친구를 쿡쿡 찌르거나 하면서, 교수님, 정말 왜 그러세요..

"다같이 즐겨봅시다!!"

"나한테 이런 메일이 왔는데..."
다음 수업시간, 교수님은 주섬주섬 손수 프린트해온 종이를 꺼내신다. "교수님의 이러한 발언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이런 발언을 시정해주셨으면 하고, 학생들 앞에서 사과를.. 아니 글썄 나한테 이런 메일이 왔지 뭐니까. 여러분 재밌지요? 재밌지 않습니까? 허허 나보고 사과를 하래요 글썄."
..교수님.. 정말 재밌으세요?

"이거 교수권 침해야 교수권 침해! 요즘 학생들은 말이지!"

심지어 이렇게 못박기도 한다 "내 발언이 성차별 성폭력적이고 어쩌고? 전에 그런 학생, 나한테 F 받아갔습니다." 처글프게도 당장 수업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학점도, 경험도, 앞으로 또 수업을 듣게 될 가능성도, 지도교수도, 대학원도, 사회진출도 □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교수님의 반응 앞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앞길에 구만리 갈기 때문에, 그런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운 수업을 듣고 싶은 건데, 그리고 성차별 성폭력에서 안전한 수업을 들을 권리는 학생들에게 당연한 것인데 교수님의 발언을 지적했다는 것 만으로 노발대발 하신다.

강의실 안 언어 성폭력 근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업 중, 성차별/성폭력적인 발언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다양한 문제제기 방법들을 모아보았다. 실전에 적용해 보시길.

방법 1 손 번쩍!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문제가 되실 만한 발언을 하는 즉시! 손을 들고 얘기한다. 교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그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대단한 담력이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하는 일도 어렵다.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웃음거리만 되고 상황이 무마되는 경우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방법 2 "교수님, 제가 수업을 듣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메일을 보낸다

메일이나 개인적 면담을 통해 교수님께 문제제기를 한다. 수업시간에 바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다는 교수님도 덜 당황스러우시거나 덜 방어적이실테고, 찬찬히 얘기를 드릴 여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라고 받아들이실지도 모른다. "그래 학생은 불편했구나. 그렇지만 수업을 위해서라면 이해를 해줘요. "라고 무마될지도 모른다. 시정이 되지 않거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

방법 3 학사평가에 반영한다.

익명성도 보장되고, 시험이 끝난 뒤이니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할 공간이 없다! 기타의견을 적는 란에 조심스럽게 적어보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확인 할 길도 없고 교수님이 그다음 수업에서 성차별/성폭력적인 부분을 인지하시고 시정해주실지 보장도 없다.

방법 4 대자보를 붙인다.

다른 학생들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인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 보다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인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전단지를 돌리거나 하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게다가 이를 명예훼손 정도로 받아들이신 교수님이 더욱 혐오 발언들을 쏟아내실 때는 좌절

방법 5 총여학생회 (mildamhy@gmail.com)으로 신고한다.

교수님의 발언이 불쾌하거나 불편하다고 느껴더라도,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 얘기를 하려면 정리도 잘 안되고 결국 '내가 예민했던 건가' 라고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최대한 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절차가 이루어진다. **모든 신고 과정은 익명으로 처리된다.**

- ① mildamhy@gmail.com으로 수업 일시와 수업 내용, 성차별 성폭력적이라고 여겨지는 발언을 적어 보낸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 ② 총여학생회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교수님께 사실을 확인한다. 더불어 그러한 발언이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시정을 해주시면 좋을지를 제안드린다.
- ③ 교수님이 답변을 보내오시면 신고학생에게 전달한다. 시정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신고학생의 답변을 통해 확인한다.
- ④ 교수님의 발언이 시정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성차별/성폭력적인 발언들을 하실 경우 신고학생과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 ⑤ 교수님의 발언이 시정되었을 경우 신고학생의 확인을 받고 교수님의 답변을 전달한다.

방법 6

위의 방법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성폭력/성차별적 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 www.hotline.or.kr/ (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02-739-8858)
 한양대여성평등센터 help.hanyang.ac.kr/ (02-2220-1444)

우리학교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성의 이해” 수업, 무엇이 문제였나?

한양대에서는 ‘성의 이해’ 라는 수업이 있었다. 16년째 같은 강사에 의해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어오던 대단위 교양수업이었다. 그러나, 성의 이해라는 이름과 달리 잘못된 성지식, 피임법이나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가르쳤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는 그 강의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 문제 될 게 없다” “좋은 수업인데 왜 그러느냐” “교수님이 자식도 있으신데 이 일을 잃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항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잘못된 피임법,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옳은 지식인 것처럼 수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또한 그것을 아무런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다음은 당시 수업의 수업용 ppt 일부이다.

결혼과 성생활

결혼의 의미

- 안정감 있는 터, 평생의 동반자
-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신성한 의식
- 책임감과 좋은 의지로 가정을 지킬만한 능력의 소유자
-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사회생활인으로써
- 인격에서, 가사일에서, 사회활동에서, 성생활에서의 신
- 선발

남성이 여성에게 바라는 것

- 빠른 신호와 느린 응답
- 시각을 만족시켜 주어야
- 적극적인 호응
- 연구할 것
- 교배는 너무 좋아도 너무 싫어도 안됨
- 성관계 유해를 거부하지 말 것
- 남성은 성관계와 사랑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음
- 남성이 늙으면 여성의 도움이 필요

성의 불일치

여성이 남성에게 바라는 것

- 여성대접 받기를 좋아한다
- 외도는 항상 깔끔해
- 사랑에는 감을 성이 있어야
- 음핵에 무뎌, 쾌감의 여운을
- 변태적 성관계 요구 많 것, 한눈을 팔면 손때
-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 것
- 성관계 속 감동을 막지 말 것

성희롱 혹은 잠재적인 성희롱을 하고 싶은 증후 를 느낄 경우

- 치마 짧고 가슴 이쁘고 큰 여자랑 단둘이 있는 상황
- 켜서한 여자가 다리 꼬고 앉았을 경우
- 급한데 여자가 안들리고 할 때
- 세근하고 도도한 여성을 보았을 때, 혼자 있을 때
- 맘에 드는 여성을 익숙한 곳에서 만날 경우
- 노골이 심한 여성을 접할 때, 동대 쪽이는 여자 만나
- 스킨십 나누는 동안 노골이 심할 때, 손 휘젓을 때 노
- 출 심하고 애를 쓰지
- '날 잡아 드시오'란 듯한 몸짓이나 웃자임
- 열등감과 가슴이 멎진 여자를 볼 때
- 몸매가 잘 빠진 여자가 노골이 심할 때

이 외에도 질의 사정을 피임법중의 일부로 가르치거나, 여성을 대상화 화거나 남, 녀를 일반화 한 편견들을 재생산 했던 수업이 16년이나 같은 내용으로 지속 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수업은 끝까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끝에, 2011년 폐강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된 성지식이나 편견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려온다.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권리. 이제는 찾아야 하지 않을까?

여성이 기억하고 여성이 기록하는 여성을 기억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 여성이 기억하고 여성을 기억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 여성이 기억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
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밀담 언어성폭력 자료집

언어성폭력이란?

언어폭력이라는 개념도 생소한데, 언어성폭력이란 무엇일까?

우선은 성폭력이라는 단어에 움찔하게 된다.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마치 강간이나, 그에 준하는 폭력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의 잔인성이나 피해자에게 남기는 상처,

사회적 공분 때문에 누군가 내가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폭력의 범주는 아주 넓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폭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말이 아닌 제스처나 시선 조차도 폭력이 된다.

그리고 그런 언어, 비언어적 행동들은 우리가 의도치 않더라도,

우리가 접하는 편견들을 별 생각 없이 재생산 해내는 것 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 날아가기도 한다.

또 어떠한 편견들은 성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비하에 기반을 두기도 한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걱정이나 농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역시 그것이 성차별이나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폭력이거나 차별일 수 있다)

우리가, 혹은 우리 주변의 타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무말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별 생각 없이 하거나 들던 말들이 누군가에게 무례하거나

사회의 편견들을 다시 퍼뜨리려는 행동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